

# 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 I )\*

채 금 석  
숙명여대 의류학과 부교수

## Development of Practical Korean Costume Model ( I )

Keum-Seok Chae  
Dept. of Clothes and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et basic data for R&D to activate and popularize the Practical Korean Costum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theoretical study with literature and practical study with development of model based on the result of questionnaire.

1. In theoretical study, the concept of 'Korean-image' of modern costume as well as 'Moder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has been suggested and 'traditional beauty of costume', which can be evaluated generally, was considered.

2. In practical study,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wed the objective numerical value of the element of Korean design which is firmly recognized by Korean people. With the results, the methods of development and composition of design have been suggested, in the harmony of 'traditional' and 'modern', through the modernization in terms of form, composition, fabric, color.

It is expected that development direction of Practical Korean Costume which can be settled in everyday life with more independent cultural identity should be suggested. Additionally,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ful for merchandise planning of costume industry.

Key Word : 현대화(modernization), 전통성(tradition), 정체성(identity), 대중화(popularize), 편의성(facility), 실용화(practicalize)

---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 1998학년도 과학기술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I. 서론

19세기부터 진행된 현대주의(modernism) 사회에서 패션은 전통적인 요소를 파괴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패션에서 추구되는 다양한 이미지와 정체성의 끊임없는 변모는 현대사회 내에서 정체성 성립과 위기, 또는 자아 상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들에게 개성적 스타일과 정체성에 대한 실험과 창조를 촉진시켜 왔다. 이러한 패션의 흐름은 post modernism 사조가 제기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려는 자성적 노력과 종족주의(tribalism)로 방향을 바꾸어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의 패션계에서도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패션 창작활동을 전개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은 '생활한복'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우리 전통복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의류업계에서도 전통 복식미에 입각하여 '생활한복' 디자인 현황 및 구성적 특성, 업체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가 생산의류업계에 피드백되어 대중적 실용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생활한복'의 용어개념에 대한 일관되고 보편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아직도 이 용어는 학계나 업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대중들에게 확실한 개념을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정의로는 "전통한복의 탈착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용시의 답답함, 작업시의 거추장스러움 등 전통한복의 단점을 보완한 한복"이라는 견해<sup>1)</sup>와 "이전까지의 개량 한복의 사용자가 일부 계층

에 제한되고 일상복으로 착용이 매우 저조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된 옷으로 양복에 한복적인 복식 요소를 응용한 새로운 패션"<sup>2)</sup>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이외에 '개량 한복', '우리옷', '현대 한복'의 용어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량 한복에서 '개량'이라는 단어는 좋지 못한 것을 고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개량한복보다는 '생활옷' 또는 '우리옷'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통 의상으로서의 한복은 예복의 성격이 강하므로 '전통 예복'이라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sup>3)</sup> 개화기 이후의 개량한복이나 전통한복과 차별된 1990년대 후반의 '우리옷' 또는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판매되는 옷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생활한복에 대해 개화기 이후를 시점으로 정하여 '전통복에서 유발되는 착용 및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현대생활과 현대인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및 구성상으로 변화·개발된 의복'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관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학계를 중심으로 단일한 창구가 마련되어서 생활한복 용어에 대한 공식적 개념정의가 내려질길 바란다.

의류업계에 있어서도 이미 생활한복에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생활한복 업체가 생겨났으나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 대중들의 자연스런 선택과 수용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대중적 실용화 측면에서 미흡하여, 생산·판매 측면에서도 의류업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전통 요소들을 현대 생활감각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작업이 미흡한 것을 들 수 있고, 또한 서양복 개발에서와 같이 합리적인 의생활을 목적으로 한 과학적 연구

1) 이인자, 이태욱, "한복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1993.

2) 황의숙, "한국 여성 전통복식의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1995.

3) 김재정, 「한국의 미」, 중앙일보사, 1986.

4) 천중숙,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6호, 1998.

가 전문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의 생활한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적정 가격대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전통적인 요소가 시대 흐름에 맞도록 새롭게 제안이 되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생활한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생활한복의 모형을 제작하고 제안함으로써 생활한복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기초적인 지침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 1보에서는

첫째, 이론적 연구로서 한국복식의 '현대화'의 개념과 더불어 현대복식에 있어서의 '한국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현대 생활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통적 복식미'와 생활한복에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미와 디자인상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설문조사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대중들이 생활한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과 디자인 선호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대중들에게 확고히 인식되고 있는 한국적 디자인 요소와 생활한복의 디자인 선호도를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보의 연구에서는 형태·구성·소재·색채의 측면에서 현대화를 통해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를 가시화한 디자인 개발과 구성상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생활한복 시장과 업계 현황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개발한 생활한복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이로써 단순히 옛것의 형식적인 재현이나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추체적인 문화적 정

체성을 가지고 생활문화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생활한복 개발의 방향이 제시되리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현대화의 의미

생활한복을 개발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바로 전통복식을 '현대화'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현대화'는 보편적으로 문명의 발전이나 인간생활의 향상 또는 고도의 교양 및 세련 등의 의미와 더불어 비서구 지역에서는 서구 지향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현대화 과정은 공업생산체계에 따라 대량생산 및 표준화, 본업화 등으로 상업뿐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정신문화에도 파급되어 획일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프랑스의 리피르(Paul Ricoeur)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현대화된 범세계, 역사적인 추세로서 어느 민족도 여기에 가세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 범세계적인 현대화의 과정이 모든 민족을 모두 똑같은, 특징없는 문화패턴 속으로 몰아 넣는 것 같다. 그러면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적 획일화를 피하고 그 민족의 독특한 정신분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sup>5)</sup>라고 지적하여 현 시대에 있어 각 문화의 정체성 회복 및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주의에 있어 패션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되고 받아들여지는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sup>6)</sup> 20세기 초 현대화된 서구권 국가들의 복식문화는 식민지 정책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었으며, 우리 복식문화의 현대화 과정은 일제의 침략기간 동안 전통문화의 단절을 겪으면서 식민사관에 몰리게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경제발전 일변도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수용으로

5) 홍가이, 「현대미술·문화비평」, 서울 : 미진사, 1987, p.43.

6) Shri Benstock and Suzanne Ferriss, 「On Fashion」, New Jersey : Rutgers University Press, 1994, p.160.

인해 많은 왜곡이 이루어졌음을 간과할 수 없다. 패션산업은 서구의 디자인을 그대로 수용하여 보편화되었고, 이는 곧 현대화가 서양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보다 주체성있는 태도로 전통문화 및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일어난 것은 1980년대 중반을 이후이다. 이때부터 많은 디자이너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성, 한국적 전통표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민족의 주체意識과 함께 한국적인 미를 찾기위해 노력을 하였다. 더욱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패션산업은 국제화 추세와 유통개발 및 소비자의 생활향상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비한 경쟁력이 중요시되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개념'과 함께 디자인의 차별화에 대한 재인식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패션산업을 포함한 우리의 복식문화는 '전통복의 현대화'에 대하여 직설적 표현으로 외형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현대화'에 있어 그 주체를 어디에 두는가와 의 문제에도 상당한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최근 전통복식에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현대화'와 '한국화'의 혼동이 그것이다. 본 연구자는 '현대화'란 전통복에 주안점을 두고 현대생활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요건이나 서양복의 요소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며, '한국화'란 서구적 패션에 주안점을 두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복식 특성과 접목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때 '한국화'는 서구패션의 '중국화' 또는 '일본화' 등과 같이 시각적인 국제화 현상과 동일한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복을 현대화한 예는 기모노와 그 속옷에 해당하는 유카타(浴衣) 등 평면적인 포 형태의 의복을 이용하여 국내외적으로 자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중국·인도나 중동지역의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의 비서구권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자국의 전통복을 개발하여 일상적으로 생활화함은 물론 공

식적인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시각적 인식을 얻어냄으로써 자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다.

복식에 있어서 진정한 '현대화'는 전통복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성립된다고 본다. 첫째, 현대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선과 형태를 변형·보완하는 것으로 실루엣상의 현대화이다. 둘째, 관리상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소재에 과학적 가공법을 적용하거나 서양소재를 혼용함으로써 관리상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강화하는 소재의 현대화이다. 셋째, 세부장식 및 착장방식의 현대화이다. 넷째,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측면에서의 현대화이다. 활동상의 편의성이나 착장상태의 심미적 개선을 위해 전통복의 구성방법에 서양복의 패턴을 응용하는 방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끝으로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수용과 외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심미성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 전통복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적이고 정신적인 아름다움의 요소를 현대인의 감각이나 주변 생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개선하여 시각적 부조화를 최소화하고 심리적으로도 순응되도록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전통복에 착장성, 기능성, 활동성, 편의성 및 현대적 심미성의 요구를 융합시켜 국제화된 현대생활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 안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우리만의 색채,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전통복에서 선, 색, 소재 등 가지적인 요소를 응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순수한 한국의 정신문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우리의 복식문화가 생활속에 자리 할 것이다.

## 2. 전통복식과 생활한복의 미적 특성

90년대에 들어서서 전통적 복식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 선행연구들은 전통적 복식미의 미적 범주를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소비자들의 의식 조사에 근거한 연구에서는 전통복의 미적 특성에 대하여 균형미, 율동미, 통일감, 조화미로 평가<sup>7)</sup>하거나 우아함의 특성으로 인식<sup>8)</sup>하였다. 또한 한국적 이미지를 갖는 복식에 있어서의 스타일 선호도 경향에 관하여는 전통복 스타일은 55.0%, 유행이 가미된 형은 29.4%, 기존의 생활한복은 13.8%로 나타났다.<sup>9)</sup> 여기에서 전통적 스타일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기존의 생활한복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중인 생활한복의 제품 이미지가 풀워있고 지적인 이미지의 추구는 만족시키나 '노숙해 보임', '세련미의 부족', '유행성의 결여' 등<sup>10)</sup> 부정적인 면에서 생활한복의 미적 특성이 인식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형태구성에 있어서도 생활한복의 저고리 길이, 깃 모양 등에서 조선시대의 저고리 디자인을 복원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전통한복의 기본 요소로 인정되는 다른 요소가 생략되거나 서양의복 구성요소인 단추, 포켓 등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 전통복의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1)</sup>

이상에서와 같이 생활한복에서는 활동성이나 편의성을 도모하는 기능미가 요구됨은 물론 전통복이 갖는 고유한 전통미도 매우 중요시되어 현대적 세련미와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활한복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앞서 전통적 복식미의 고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복에 담겨있는 미적 요인 및 특성을 민족의 정신문화에 근거하여 파악하고 재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옛것의 외형적인 재현이나 모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풍토적 조건과 역사적 여건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생활한복의 미적 특성의 정립은 민족정서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현대화의 경향을 조화시키며 전통복을 현대화하는 근원적인 기반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복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있고, 우리만의 색채와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다. 고요한 정지 속에서 보이는 역동적인 선의 묘미인 靜中動의 미, 음양오행사상과 불교의 사상, 노장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虚空상의 소박, 담백, 그윽함으로 표시되는 여백의 묘미, 여기에서 펼쳐지는 청순한 섬세미, 흐르는 듯 내려가다 사뿐히 치켜 오른 버선코, 부드러운 치마폭에서 휘감아 내리는 저고리 고름의 선 등의 완곡미의 아름다운 선 속에서 선과 맛, 멋, 흥이 어우러져 하나의 승화된 一元으로 된다<sup>12)</sup>.

이러한 우리 전통복의 아름다움은 회화를 비롯한 조형예술과의 미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연의 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철저하게 고려된 기교성보다는 여유있는 선의 표현과 공간에 대한 선호 또는 간결성을 지향하여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순수한 정서에서 우러나오는 특성이다. 조형적인 면에서 인체의 물리적 부위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인체의 신성한 미적 가치와 복식의 금욕적 미를 표현하며, 인체의 과장되지 않은 인성의 가치를 추구하여 순수한 미와 자연의 미를 지닌다<sup>13)</sup>. 이러한 미는 복잡한 선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아니라, 단순한 기하학

7) 황춘섭,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복식」, pp.119-129

8) 홍병수,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양장과 한복의 이미지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2권 3호, pp.373-382

9) 최선형외 2명,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에 대한 의식 - 서울,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복식」, 35호, 1997, pp.253-264

10) 최은영, "생활한복의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42호, 1999, pp.56-57

11) 청송수, 앞의 글(1998), p.698

12)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13) 김윤희, 김민자, "인체의 추상형/사실형 개념에 따른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연구", 「복식」, 41호, 1998.

적 형태로 평면 배치·구성된 형태의 순수미, 그리고 저고리의 배래와 도련 등의 부드러운 곡선이나 치마의 풍성하고 부드러운 선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우아한 형태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무명, 모시, 삼베 등의 옷감에서 나타나는 정제된 태(態)와 결의 순수미와 투박한 소재에서 느껴지는 토속적 정겨움이 그러하다. 옷차림에 있어 미적 기준이 그 신분에 알맞은 차림과 더불어 내면의 인격을 자연스럽게 표출해내는 자태에 있었음도 이에 해당된다.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미적 표현은 땀시와 고름, 단정함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전통복의 미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 1) 구조적 특징

우리 한국인은 농경 촌락 공동체를 취락과 생활의 근본으로 삼음으로써 동심동체의 동질화를 소중히 여겼다. 이러한 의식으로 한국인은 집단취사(集團炊事)를 중심으로 의생활에 있어서도 동포(同袍)<sup>15)</sup>의 개념을 형성하였다.

‘동포’란 한 옷을 서로가 같이 입는 인간을 의미하며, 이 속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주술적이고 의식적인 관습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직물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옷의 재생 및 재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됨으로써, 하나의 옷을 구성할 때 일정한 규격을 정하여 마름질하지 않고 여유분을 충분히 두어, 치수나 형태면에서 다용도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여유있는 의복 구성의 특징은 우리 민족의 좌식생활을 반영하여 움직임이나 입는 방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한국 전통복은 평면재단 방법에 기초한 구성법에 의해 서양복과 차이를 보이며, 생활한복은 그러한 특성들을 조화시켜 미적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 2) 조형적 특징

조형적 측면에서 서양의 것이 사실적인 감각과 현상에 충실하여 표현되었다면, 우리의 전통적 미의식은 정신성·사상성등 관념적인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여 조형요소로 형상화 하였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에 근거한 전통복식의 선과 형태는 무한한 상징적 역동성을 간직한 선이며 장식적이지도 않고 규격화되지도 않은 선으로 거시적인 자연의 원리에 조화되는 것이다.

또한 여유를 두어 재단하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 전통복은 특유의 부피감을 갖는다. 이는 보이지 않음이 드러내 보이는 것보다 많은 공간의 창출을 의미하는 ‘여백의 미’를 반영하는 것이며, 여백은 단순히 사물의 결여가 아닌 조형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식 외형상 특성을 이루는 원리를 형태미, 균형미, 비례미<sup>15)</sup>에 근거하여 우리 전통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형태미

우리 전통복은 인체의 형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간결한 사각형으로 인지하고 구성에 있어서도 복잡한 조각이나 기교없이 기하학적 형태로 인지된 형태를 매우 단조롭게 조합시킴으로써 조형의 순수성을 보여준다. 즉, 동양적 일원론에 뿌리를 두어 有와 無가 독립된 실체가 아닌 섞여있는 하나의 실재이며, 모임과 흩어짐, 나옴과 들어감, 형체가 있음과 없음을 포함하는 평면적인 구성이다. 예를 들어 바지의 마름질에서는 天, 地, 人의 ○(圓), ㄱ(方), △(角) 모양을 갖고 있으며, 각 도형은 재단시 평면으로 존재하지만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이러한 각 도형이 조합된 입체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sup>16)</sup> 두 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마루폭 사이에 역시 두 개의 사폭이 각을 이루며 맞물려있고 사각형의 허리가 이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착용시 행진이나 대님을 착용하므로써 풍성한 곡선이 이루어져 생명력

15) 김영자, 「韓國의 服飾美」, 민음사, 1992, pp.60-103.

16) 임영자,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호, 1996.

<표 1> 전통복과 현재 유통중인 생활한복, 서양복의 특징 비교

구 분	전통한복의 구조적 특징	현재 생활한복의 구조적 특징	서양복의 구조적 특징
(가) 구성 방식	1) 의복 치수 규격의 융통성 : 의복 치수 설정에서 체형보다 여유를 두므로 한 의복에 있어 착용자의 치수에 대한 제한이 적다. (예:남성 바지의 허리둘레와 밑위 길이의 여유분 / 여성 치마의 평면성에 의한 둘레 치수의 여유분)	1) 의복 치수 규격의 제한적 융통성 : 유통중인 생활한복은 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65% 정도로 의복 치수규격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동솔의 경우에는 의복치수 설정의 여유량보다는 저고리 디자인의 예스러움을 나타내는 요소로 사용하여 제한적으로 규격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1) 의복 치수 규격의 명확성 : 신체의 세부구조를 최대한 반영한 체형의로서 각 의복마다 둘레 및 길이에 대한 치수 제한이 명확하여 착용자가 구분된다.
	2) 의복 결속 양식의 가변성 : 의복의 결속 양식(여밈방식)에 여유와 영분을 주어 체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예: 남성 바지의 허리띠, 치마끈, 웃고름,저고리 앞부분의 설)	2) 의복 결속 양식의 부분적 확정성 : 남녀 저고리에 있어서 겹고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단추의 사용이 일반적이어서 치수의 변동에 제한을 준다. 따라서 치수가 남녀 저고리의 경우 3-4가지로 구분된다.	2) 의복 결속 양식의 확정성 : 단추나 후크(Hook & eye), 지퍼(Zipper)등을 이용한 고정 장치로 치수의 변동에 제한적이다.
	3) 개방형으로서의 공간의 : 여유로운 재단과 트임을 이용하여 기능성과 편의성 도모. 특유의 공간미를 형성하여 개방적인 복식미를 갖는다. (예: 앞뒤와 양옆이 트여있는 남성용 포(袴)류, 거드랑이에 서 밑단까지 트여있는 여성용 혼례복(당의, 원삼)과 현대 두루마기의 옆트임	3) 반폐쇄형으로서의 공간의 : 트임보다는 평면재단방식에 의해 여유분을 봉하여 공간을 부여하는 반폐쇄적인 공간의의 성격을 보인다.	3) 폐쇄형으로서의 체형의 : 인체에 맞는 재단으로 최대한 인체부위에 적합하게 착장되며 활동성을 고려한 여유분을 부여함으로써 기능성과 편의성은 도모한다.
	→전통한복은 신체에 구속을 적게주는 여유있는 구조의 '들러입는 옷 또는 걸치는 옷'이다.	→생활한복은 신체에 구속을 적게 주나 절충적으로 한정된 여유량이 형성되는 '공간적인 옷'이다.	→서양복은 인체의 구조에 따른 체형의로서 여유가 없는 '밀착되는 옷' 또는 별도의 공간이 형성되는 '폐쇄적인 옷'이다.
(나) 재단 방식	평면재단 방식  : 인체의 굴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면 재단으로 착용을 통해서 입체미가 형성되어 자유로운 미적 특성을 지닌다.	직선적 재단방식에 절충적으로 극소수의 서양식 패턴을 시도  : 여자 저고리의 경우 64%, 남자 저고리의 경우 70%가 직선진동선을 사용. 프린세스 라인의 이용은 4% 이내로 전통적 평면재단 방식	입체재단 방식과 평면재단 방식의 혼용  : 입체 재단과 다아트(Dart)를 이용한 인체 굴곡의 표현에 충실하다.
(다) 착용 방식	한국적 문화개념의 '싸는 문화' : 여성의 치마와 같이 한 장의 옷감 형태의 평면적 구조에서 몸을 둘러싸는 착용방식(襖衣形)이다.	한국적 문화개념의 개방적 '담는 문화'  : 절충적으로 형성된 반제한적 공간에 몸을 담는 형식으로 착용한다.	서양적 문화개념의 '담는 문화'  : 일정한 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된 부피를 가진 옷속에 몸을 담는 형식으로 착용한다.
총체적 특징	일체로서의 포용과 접합에 가치를 두는 구심적인 가치관에 의한 복식관(예: 싸는 문화로서의 치마)		개체로서의 독립과 개인으로의 이탈에 가치를 두는 원심적인 가치관에 의한 복식관(예: 패티코트로 부풀린 스커트)

있는 선의 울동미가 부여된다.

저고리 역시 사각형을 기본단위로 하여 목부분에서 곧은 안깃과 겹깃이 사선으로 V자형을 이루며 앞으로 내려와 곡선으로 모아져 여밈을 형성함으로써 간결한 직선과 곡선의 단정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고름은 몸체의 움직임이나 외부의 영향에 따라 울동미를 보여준다. 두루마기는 겨드랑이에서부터 끝단에 이르는 옆선에 삼각형의 무를 달아 두루마기의 선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A라인을 이룬다.

사각형을 기본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치마도 향아리 실루엣을 형성하면서 착장법에 따라 다양한 곡선의 형태를 이룬다. 향아리형 실루엣은 엉덩이선에서 풍성한 형태를 보이며 치마단 부분으로 가면서 좁게 휘어지는 형태로서, 극단적으로 짧은 저고리와 같이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형태를 평면적인 복식형태를 통하여 은근하게 노출하는 멋을 보인다.

#### (나) 균형미

전통복은 대칭을 이루는 전체적인 구조안에 저고리의 섹, 고름 등과 같은 여밈 부분과 착장법 그리고 남자 바지의 사복 구성에서 많은 비대칭 균형을 형성하고 있다. 상하, 좌우의 비대칭은 저고리의 깃, 고름, 동정, 섹, 끝동, 겹마기 등에 선의 변화나 다채로운 배색효과로써 더욱 돋보이며 단순한 형태인 치마와 균형을 이룬다. 특히 여자의 치마, 저고리에는 상하의 수직적 균형이 두드러지는데, 치마의 넓은 면적은 저고리의 좁은 면적과 대비를 이루어 세련된 균형미의 조화를 이룬다.

#### (다) 비례미

저고리의 길이와 치마길이는 상하를 구분지어 고구려 벽화를 통해 볼 수 있는 황금비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점차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

서 저고리와 치마는 고구려시대 이래 서 있는 상태에서 앉은 상태의 비례미<sup>17)</sup>로 구조적으로 안정된 미적구성을 보이는 불균형의미를 이룬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각 세부형태나 장식선들은 황금비례에 가까운 비례를 보이며 이러한 비례미가 가변적이면서도 항상 이상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구해 왔다.

이와 같이 우리 전통복의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조사<sup>18)</sup>를 통해 남녀 저고리의 경우 깃, 소매의 배래선, 동정, 고름, 섹, 등의 순서로 그 특징적인 요소들이 지적됨으로써 깃·배래·동정 등에 대한 인상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바지에 있어서는 바지부리, 대넒의 결속방식, 허리의 여밈형태, 밑위 등을, 그리고 여자 치마는 향아리 실루엣과 물터입는 방식, 허리의 주름 및 허리선의 위치등을 전통복의 이미지를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복의 현대화 과정이나 생활한복의 디자인 개발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

#### 3) 색채적 특징

우리의 전통색채는 유기적이고 생성적인 자연관이나 심오한 우주관에 심취하였던 선조들의 미의식과 사상이 담겨 있어서 깊은 상징성을 갖는다. 이는 유교의 음양오행사상이나 태일(太一) 개념, 불교에 입각한 색의 시공성 또는 도가사상에서 유래된 氣의 원리 등에 의해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색채의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밖으로 표현되는 현상적인 색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각각의 색은 형이상학적인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선조는 가시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기보다는 착용자와 환경과의 시공간적인 조화에

17) 김영자, 「韓國의 服飾美」, 민음사, 1992, p.88

18) 본 연구자는 일반 대중들의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인 <Ⅲ장의 실증적 연구> 이외에 본 연구의 보조자료로 참고하기 위하여 복식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1998년 10월 부터 11월 까지의 기간중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통복 요소'에 대한 간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미를 두어 색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자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정신과 자연과의 미묘한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과 연계성을 가진다. 더불어 자연의 미를 소중히 하여 색채에서도 작위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저절로 생성된 것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지극히 단조로우며 소담한 색이 주를 이루는 우리의 전통색은 색의 감정이 절제된 배색을 좋아하여 자연스럽고 은은한 채도를 띤다.

이러한 특성은 백의 작용 풍속에서 잘 드러나는데 우리의 백의는 백색 자체라기 보다는 무장식의 자연색 그 자체인 것이다. 그것은 마(麻), 저(苧), 목면(木棉)의 원료가 가지는 원래의 색인 소색(素色)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의도적인 꾸밈이 없는 소박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주거 환경에서 벽이나 문의 장호지 색조와 가구나 주택 구조물에 쓰인 흑갈색의 원목색은 한결같이 무채색의 단색조로서 우리 민족의 색채 특징을 보여준다.

소색 중심의 복식은 주로 일상복이나 서민복에서 애용되었고, 상류계층의 복식에서는 유채색을 사용하여 색채의 이분적 경향이 나타났다. 유채색의 정착은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에 입각한 청(靑), 백(白), 황(黃), 적(赤), 흑(黑)의 오방색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와 염료불 생산하는 풍토에 따라 색채의 농담이 형성되어 우리 민족의 기호를 살렸던 것이다. 오방색과 더불어 자(紫), 옥(玉), 녹(綠) 등의 담색계 색채가 등장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전통색의 특징이다. 노랑도 셋노랑이 아닌 송화색이며 홍색도 연하게 변화된 분홍이고, 청색도 옥색이 주로 쓰였다. 이는 은근한 담조미(淡調美)를 즐겨 찾던 우리 민족의

색채적 특징인 것이다.

### Ⅲ. 실증적 연구

#### 1. 연구문제

생활한복을 대중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선행 논문들은 착장시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현대적인 형태의 변화와 함께 전통미의 요소를 살린 정서적 측면과 활동에 편한 디자인 개발<sup>19)</sup>등을 강조하였으며, 디자인의 규격화 탈피, 색상과 소재의 다양화, 형태나 사이즈에 대한 개선점<sup>20)</sup>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성복회를 위한 생산적 측면, 기능성을 보강하기 위한 패턴상의 과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전통복의 현대화에 역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설정하였다.

- 1) 구성방법의 현대화 : 전통복의 구성적 측면을 분석·보완하여 현대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능성, 착장성, 편의성을 부여한다.
- 2) 조형적 측면의 현대화 : 전통복의 조형적 측면을 재조명하고 여기에 현대적 심미성을 조화시켜, 민족의 고유정서에 입각한 현대적 우리 복식의 모형을 개발한다.
- 3) 소재의 현대화 : 전통복 소재의 제작방법과 문양에서 느껴지는 멋과 함께 관리상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보강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다양한 소재를 연구한다.
- 4) 전통색의 실용화 : 전통염법에 의해 민족의 정서가 담긴 전통색을 추출하고 대중의 색상 선호도와 비교·분석하여 전통색의 일상화와 실용화 방안을 제시한다.
- 5) 관련업체의 문제점 및 보완점 제시 : 생활한

19) 안명숙의 2명,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호, 1998.

20) 조효순 의 2명, "생활한복의 구매실태 연구", 「한복문화」, 1권 2호, 1998.

복 관련업체의 상품기획 및 유통구조에 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방향을 제안한다.

위의 세부목적에 따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1보와 2보로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1의 '설문조사'를

연구과제 1	설문조사를 통한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 및 디자인 선호도 조사
연구과제 2	전통염법을 통한 선호색상 추출, 색도측정, 천연염과 화학염의 혼용방법에 의한 색상제시
연구과제 3	시장조사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한 생활한복 업체 현황조사
연구과제 4	구성방식, 조형성, 소재, 색상의 현대화될 통한 생활한복모형개발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

1.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	
1) 라이프 스타일 2) 생활한복의 필요성 3) 생활한복의 소유량 4) 생활한복 구입 실태 5) 생활한복의 착용 실태	
2. 생활한복 디자인 선호도 조사	
1) 형태 (1) 남자 ① 저고리 ㄱ. 길이 ㄴ. 폭 ㄷ. 소매폭 ㄹ. 고름 ㅁ. 여밈변형형태 ㅂ. 동정 ㅅ. 동정변형형태 ㅇ. 깃 ㅈ.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 ② 바지 ㄱ. 폭 ㄴ. 허리끈이나 대님 ㄷ.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	(2) 여자 ① 저고리 ㄱ. 길이 ㄴ. 폭 ㄷ. 소매폭 ㄹ. 고름 ㅁ. 여밈변형형태 ㅂ. 동정 ㅅ. 동정변형형태 ㅇ. 깃 ㅈ.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 ② 치마 ㄱ. 길이 ㄴ. 폭 ㄷ. 형태변형 ㄹ. 치마끈 ㅁ.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
2) 소재 및 재질 (1) 계절별 소재 (2) 재질	
3) 색상 (1) 색상 이미지 → 한국 상징색 (2) 선호색상(색상 이미지, 선호색상배색, 선호색조경향, 염색상태) (3) 색상선택 요인	
4) 문양 (1) 문양의 유무 (2) 문양형태 (3) 문양삽입 방식	

통한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 및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 대한 내용은 1보에서 게재하고 연구과제 2에서 연구과제 4의 내용은 2보에 게재하기로 한다.

## 2. 연구방법

### 1)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 및 디자인 선호도 조사

#### (1)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의 구성내용

본 연구는 실생활내의 생활한복 적용 현황 및 전통미에 대한 의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법을 채택·실시하였다. 본 설문지는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 부분과 디자인 선호도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과 관련하여 라이프 스타일, 생활한복의 필요성, 소유량, 구입실태, 착용실태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문항을 개발·작성하였으며, 디자인 선호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형태, 색상, 소재와 문양을 중심으로 개발·작성하였다. 복식과 기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자와 여자의 설문 문항을 일부 차별화하였고, 여자용 설문지 74문

항, 남자용 설문지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성인 12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시기는 1998년 3월부터 1998년 5월까지였으며, 총 1087명이 표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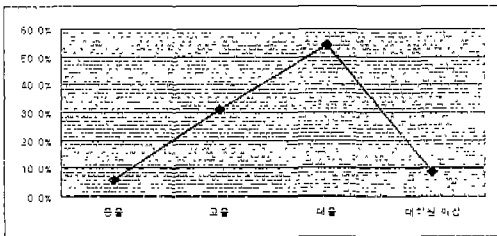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1998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20대 이상 성인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생활한복 의식 및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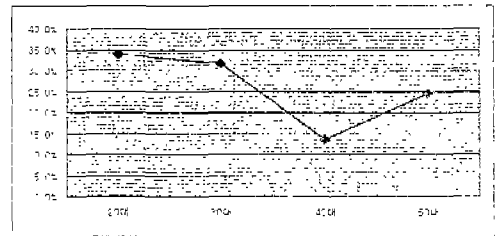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방법으로 빈도, 백분율을 전체 문항분석에 적용하였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 factor 1을 생성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은 주로 소재와 색상, 착용실태와 형태, 구입실태와 형태, 라이프 스타일과 소재 및 색상 등에서 상관관계의 유무를

<그림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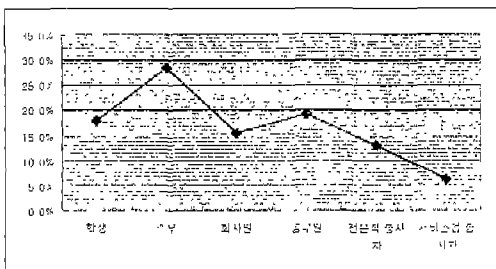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 학력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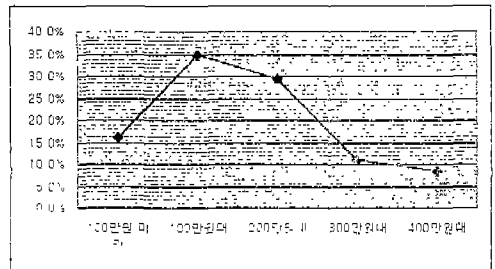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



< 조사대상자 직업 분포 >



< 조사대상자 수입 분포 >



분석하였고, 던컨테스트(Duncan Test)는 생활한복 소유량과 인구통계적특성과의 사이에서 유의성을 파악하는데 이용하였으며, 카이제승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의식조사부분을 검증하는데 적용하였다.

### 3. 결 과

#### 1) 생활한복 의식조사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는 생활한복의 필요성, 소유량, 구입실태, 착용실태, 라이프 스타일등을 중심으로 하여 총 3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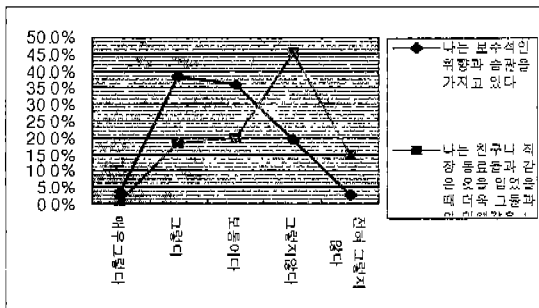
##### ①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문항으로는 주로 외모에 관한 관심, 취향과 습관, 개성표현 및 집단내의 동일성에 관계된 내용이며, 남·여로 나누어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차이가 없었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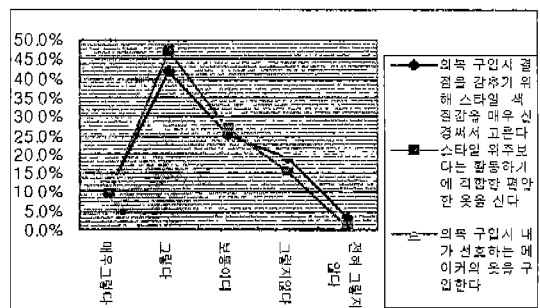
소비자들은 개성을 드러내고는 싶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취향과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목을 끄는 디자인은 실제구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행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취향과 습관을 가지되 외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관심도를 보이며, 특히 유행에 대한 잠재적 구매욕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보수적인 취향에 부합되는 의복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밝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 구입시에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색, 질감에도 신경을 쓰며, 활동성까지 고려하였다. 또한 상표충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의복 구입시 질감, 활동성, 색상 등이 만족되는 상품의 경우 상표충성도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규 마켓 또는 신규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의 선호색상, 질감 및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전개해 나간다면 기존 시장에 대해 새로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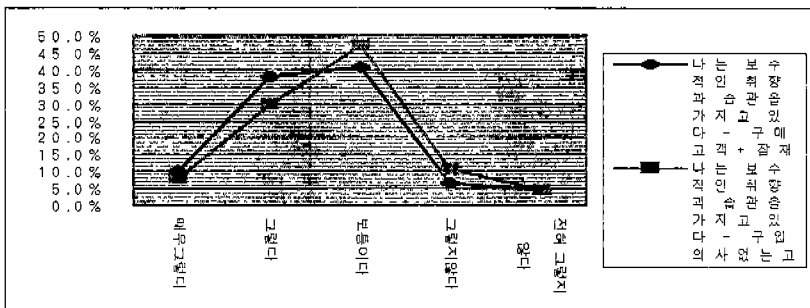
< 그림 2 > 개성표현성



< 그림 3 > 의복구입형태



< 그림 4 > 구매고객 및 잠재고객과 부정적인 고객의 비교분석



켓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여가생활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그렇다' 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수가 73.8%에 이르러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유형으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특히 다른 항목은 여러 아이템이 내재된 복합적 내용의 요인이지만 쇼핑은 단일내용의 항목으로서 16.8%나 차지하여 매우 주목할 만하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쇼핑문화가 단순히 하나의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만이 아닌 여가시간 활용도구로서,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생활의 장으로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개성표현성, 유행에 대한 태도, 의복 구매형태, 생활패턴을 생활한복 기존의 고객 및 잠재고객과 부정적인 고객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생활한복의 기존 고객 및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잠재고객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들보다 개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나 의외로 유행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경향이 서양복 위주의 패턴으로서 생활한복의 디자인이 서양복 위주의 유행성과 구별되어 소비자들에게 인식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생활한복 고객 및 잠재고객은 의복구매시 스타일, 색, 질감에 대한 태도에서 부정적인 그룹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여가시간에 대한 생활패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부정적인 집단에 비해 독서, 피아노 연주 등 예술활동 면에서는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즉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의복 구입시 결점을 감추기 위해 스타일, 색상, 질감을 매우 신경써서 고르며, 소재 및 질감에도 민감하고 친구나 동료들과 구별되는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옷을 선택하였다. 또한 보수적인 취향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위를 끄는 옷을 사지 않고 스

타일 위주보다는 활동하기에 편한 옷을 사는 관계가 성립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의 각 요인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생활한복의 필요성 및 소유량

생활한복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는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 및 구입의사, 생활한복의 착용이유를 내용으로 총 13개 문항에서 조사되었고 또한 생활한복의 소유량에 대한 조사는 2개의 문항이 배치되었다.

<표 3> 남녀별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 단위: 빈도수(%)

문항 \ 성별	남 자	여 자
0 벌	300(27.80%)	460(42.63%)
1 벌	76(7.04%)	118(10.94%)
2 벌	34(3.15%)	54(5.01%)
3벌 이상	14(1.29%)	23(2.13%)

$\chi^2 = 0.027$  df(자유도) = 4 p-value(유의도) = 1  
Frequency Missing = 7

<표 4> 남녀별 생활한복의 필요성 단위: 빈도수(%)

문항 \ 성별	남 자	여 자
매우그렇다	82(7.59%)	122(11.30%)
그렇다	234(21.66%)	347(32.13%)
보통이다	73(6.75%)	110(10.19%)
그렇지않다	36(3.33%)	52(4.81%)
전혀 그렇지 않다	9(0.83%)	15(1.38%)

$\chi^2 = 0.027$  df(자유도) = 4 p-value(유의도) = 1  
Frequency Missing = 7

여기서는 prob=0.001<0.05이므로 교육수준에 따라 소유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그룹, 중학교와 대학교 학력을 가진 그룹, 대학원의 학력을 가진 그룹으로 나누어 졌다. 대학교와 대학원을 학력을 가진 경우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으나 중학교의 학력과 대학원의 학력을 갖은 경우는 유의수준 5%로 구별되었다.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한국인으로서 전통을 계승한다는데에 의미를 두어 전통한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명절이나 격식을 갖추는 행사에 정장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평상복으로서의 전통한복

<표 5> 교육수준에 따른 소유량-DUNCAN TEST 결과

Duncan Grouping	Mean	N	EDU
A	1.75	333	고재학 및 졸업
B	1.48	64	중졸
B C	1.31	580	대재 및 졸업
C	1.26	95	대학원재학 및 졸업

착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 실용성 미흡(57.0%) : 활동이 불편하고 옷손질 및 착용 방법이 복잡하다.

㉡ 대중성 미흡(29.9%) : 일반 대중들이 전통한복을 평상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상복으로 전통복을 착용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주목받는 것으로 인식 될 만큼 대중성이 적다.

㉢ 다양성 미흡(7.2%) : 친편일률적인 상품구색으로 소비자의 연령이나 기호, 또는 착용 시점에 따른 상품의 다양성이 미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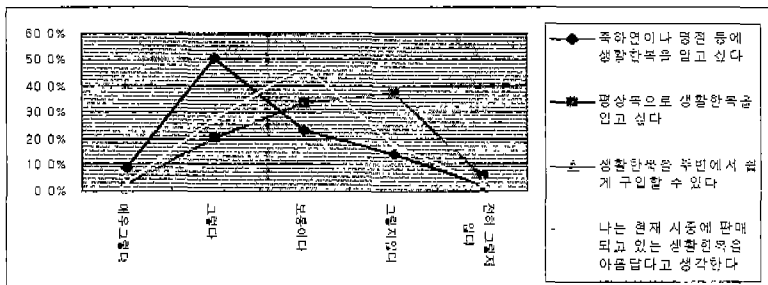
생활한복에 대해서도 역시 전통문화에 근거한 우리의 고유성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착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착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생활한복을 행사복으로 착용하는 것과 생활한복의 폭넓은 보급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구매의사에서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구매의사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것 보다는 일정 수준의 이상의 고품

질과 이에 타당한 적정가격대의 상품을 원하였다.

착용용도에 있어서는 생활한복은 명절, 혼례 등 각종 행사에 주로 착용하며, 평상시에 입는 경우는 14.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행사복으로는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평상복으로서의 성격은 거의 만족시키지 못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실용성 및 다양성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지금보다는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절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많이 착용하는 계절은 봄·가을, 겨울, 여름 순으로 나타났으나 명절 및 결혼식이 많은 봄·가을이 가장 생활한복을 자주 입는 시기인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생활한복을 착용하는 소비자의 현 상황을 변화시켜서 보다 일상적인 복장으로서는 생활한복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한복 착용에 따른 이미지는 예술인과 같은 고상한 멋을 느껴서 입어 보고 싶은 욕구(30.9%)와 여러사람들 속에서 자신

<그림 5> 생활한복 착용 및 구입에 관한 조사



이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망설임(43.5%)이 높게 나타났다.

### ③ 결 론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은 개성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외모나 유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관심도를 보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것이 개성을 드러내는 의복의 실구매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또한 의복 구매시 상표충성도 보다는 의복의 색상, 질감 및 활동성을 우선되는 조건으로 고려하고 여가시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의복산업은 앞으로 소비산업에서 문화산업과 관련성이 높아져 그 영역이 확장,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형태, 색상, 질감등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생활한복의 마켓 형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행사에 한정하여 생활한복을 착용하는 소비자의 현 상황을 변화시켜서 보다 일상적인 복장으로써 생활한복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한복 착용에 따른 이미지는 예술인과 같은 고상한 멋을 느껴서 입어 보고 싶은 욕구(30.9%)와 여러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망설임(43.5%)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생활한복을 착용하므로 인해 자신이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43.5%) 즉 소비자의 심리적인 불안을 1차적으로 해결하고, 생활한복 착용 및 개성표현에 대해 긍정적인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및 소재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복으로서의 생활한복을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한복의 고유 특성에 서양복의 요소를 적절히 접목시켜, 전통한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므로써 생활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먼저 유발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2) 디자인 선호도 조사

### ① 형태분석법

형태분석법은 창조공학자들이 연구한 창조개발법 중의 하나이다. 창조개발법은 아이디어 발상법이란 용어로 설명되며, 개인이나 그룹이 많은 양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형태분석법은 디자인 문제가 수행해야 할 기능, 요구사항 등을 충족시킬 부분적인 해결안을 강구하여 이들을 종합하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특히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모든 디자인 요소를 빠짐없이 사용하여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타의 창조개발법과는 달리 시각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해결안을 도출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분석법에 의하여 생활한복에 관한 디자인 요소를 형태, 소재, 색상, 문양 등으로 분류하였고, 형태는 따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상의로는 길이, 폭, 소매폭, 고름, 여밈, 동정, 깃 등의 요소로 나누었으며, 하의에서 바지는 폭, 대님, 치마는 길이, 폭, 허리끈의 요소로 나누었다. 이것은 예비조사에서 각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각 요소별 전체 디자인에서의 중요도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형태나 색체에 있어서는 여자가, 소재나 문양에 있어서는 남자가 중요시하였다. 또한 상의의 형태요소별 중요도에서 여자는 길이와 여밈을 중요시하였고, 남자는 깃·동정과 폭에서 중요도가 높았다. 하의의 형태요소별 중요도에서 여자는 길이나 형태변화를 중요시하였고, 남자는 허리끈과 폭에 더욱 의미를 두었다.

### ② 디자인 선호도 조사분석

#### 가. 형태

형태에 관한 조사는 남녀로 구분하여 저고리와 바지, 또는 저고리와 치마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에서 10개 문항이 이에 해당된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전통한복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활동에 편리한 기능성과 활동성을 요구하였으며, 여기에 형태, 색상, 소재, 봉제 상태 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있어서 구매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전체적인 분위기, 색상, 직물원단, 가격, 바느질, 장식 순<sup>21)</sup>으로 조사된 연구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언급한 라이프 스타일과의 상관성을 비교해 보면, 보수적인 취향이나 습관은 상관계수가 -0.03412로 나타나 생활한복 디자인 형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의복 구입시 결점을 감추기 위해 스타일, 색상, 질감을 매우 중요시하여 고른다거나, 스타일 위주보다는 활동하기에 편리한 옷을 구입하는 성향과 생활한복 디자인 형태 사이에서도 상관계수가 0.14099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자인에 기능성과 활동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상관계수가 0.4137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생활한복 디자인에 있어서 보수적인 취향이나 습관 등에 의해 전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전통성의 계승에 더 초점을 둔 의미로 파악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복 구입시 스타일, 색상, 질감에 민감한 그룹도 전통한복 스타일의 변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결국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및 의복 구입시의 선택기준과 생활한복 디자인의 전통성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통한복 스타일을 고수하는 그룹과 현대생활에 적합하게 기능성과 활동성이 고려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관계수 0.4121로 나타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생활한복의 형태는 전통성에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생활한복 디자인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형태는 전통성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요소를 도출해내어 이를 중심으로 기능성, 활동성을 고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색상, 소재는 고유한 전통미를 살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가-1. 남자 저고리

· 길이 : 전통한복(58~63cm)으로 기준을 제시한 후 조사한 결과, 전통한복보다 조금 짧은 길이를 선호하였으나, 전통한복길이의 선호도도 34.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0-50대는 전통한복 길이를, 20-30대는 전통한복 보다 짧은 길이를 선호하여 차이를 보였다.

· 품 : 품은 활동성을 의식하여 약간 여유가 남는 것을 선택하였고, 소매폭은 서양복보다 다소 넓고, 전통한복보다는 좁은 폭을 선호하였다.

· 고름 : 고름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필요없다는 의견도 36.8%로 매우 높으며 고름 대신에 매듭형식의 단추를 선택하여, 전통성을 살리는 동시에 실용적인 측면을 선택하였다. 고름의 변형과 서양식 단추의 혼용도 35.6%나 차지하여 서양식 단추만 선택한 것이 9.1%에 그친 것에 비해 상당

<표 6> 남자 저고리의 선호길이

단위:빈도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문항				
전통한복길이 그대로	52(11.85%)	58(13.21%)	4(0.91%)	38(0.87%)
전통한복 보다 조금 짧게	59(13.44%)	75(17.08%)	0(0%)	34(7.74%)
전통한복 보다 조금 길게	57(12.98%)	32(7.29%)	2(0.46%)	11(2.51%)
기 타	10(2.28%)	6(1.37%)	0(0%)	1(0.23%)

$\chi^2 = 25.71$  df(자유도) = 9 p-value(유의도) = 0.002274

Frequency Missing = 11

21) 조효숙의 2명, 앞의 글(1998). p.80



히 고름의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정 : 동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필요없다는 의견도 30.6%나 차지하였다. 그러나 필요없다는 의견의 경우에도 동정을 제거하기 보다는 기존의 동정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을 원하여 전통적인 한복의 요소인 고름, 동정에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두 전통적인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것을 현대적으로 변형시키는 의견이 71.8%로 현대적으로 변형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남자 저고리에 관한 이러한 선호도는 연령별,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2. 남자 바지

· 바지폭 : 바지폭은 전통한복보다 좁은 것을 선택하여 저고리와는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저고리는 넉넉한 품으로써 편안함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전통한복 바지의 폭은 너무 넓어 오히려 활동성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 허리끈, 대님 : 대님 대신 지퍼, 단추처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바지에 있어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남자바지에 관한 이러한 선호도는 연령별,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3. 여자 저고리

· 길이 : 전통한복(25~27cm)으로 기준을 제시한 후 조사한 결과, 길이는 전통한복보다 10cm긴 길이, 즉 가슴 밑선 정도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전통한복보다 20cm긴 허리선 정도의 길이도 큰 차이

없이 선호되었다. 가슴 밑선 길이는 40, 50대에서 선호하였고, 허리선 길이는 20, 30대에서 선호하여 연령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품 : 저고리 품에 있어서도 비교적 어깨부위와 가슴부분이 조이는 전통한복보다 약간 여유있는 것을 많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활동성 및 실용성의 요구와 상응하는 결과이며, 여기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전체 23.8%가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상체에 꼭맞는 스타일이 여유있는 스타일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20대에 있어서는 그 선호도가 54.7%를 차지하는 등 현재 Minimalism에 부응하는 서양복과 같은 유행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20대는 유행을 선도하는 그룹이므로 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 판단된다.

· 소매폭 : 소매폭은 약간 좁은 것을 선호하였다.

· 고름 : 고름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거나, 필요없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6배에 달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담변형형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서양식 단추보다는 매듭형식의 단추를 선호하였는데, 미적으로 변형시킨 고름과 서양식 단추의 혼용에 대한의견이 전체에서 26.3%나 차지하였고 특히 20대에서는 매듭단추보다는 전통성을 고려하여 변형시킨 고름과 서양식 단추를 더 선호하였다.

· 동정 : 동정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없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4배에 달하고, 또한 이러한 의견은 주로 20, 30대에서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른 동정변형 형태로는 동정을 없애는 것 보

<표 7> 여자 저고리의 선호길이

단위: 빈도수(%)

문항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통한복길이 그대로	11(1.77%)	16(2.57%)	15(2.41%)	13(2.20%)
전통한복 보다 10cm 긴 길이(가슴밑선정도)	59(9.48%)	62(9.96%)	65(10.45%)	92(14.70%)
전통한복 보다 20cm 긴 길이(허리선정도)	71(11.41%)	85(13.67%)	42(6.75%)	58(9.32%)
기타	9(1.44%)	5(0.80%)	8(1.29%)	11(1.77%)

$\chi^2 = 21.04$  df(자유도) = 9      p-value(유의도) = 0.012

Frequency Missing = 24

다는 동정색상을 달리함으로써 디자인을 바꾸는 방향을 선택하여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깃은 현대적으로 변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남자 저고리 선호도와 비교할 때 각 문항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생활한복 저고리에 관한 의식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호하는 길이와 품에 있어서 남자 저고리와는 달리 선호하는 길이가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품에 있어서도 남자 저고리와는 달리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여자 생활한복에 있어서는 상품 전개시 남자 생활한복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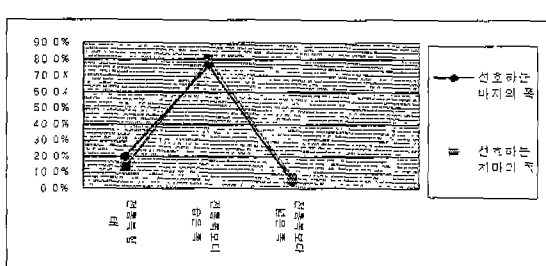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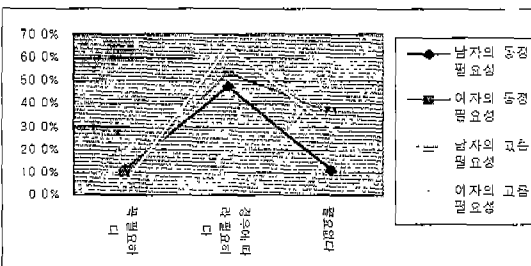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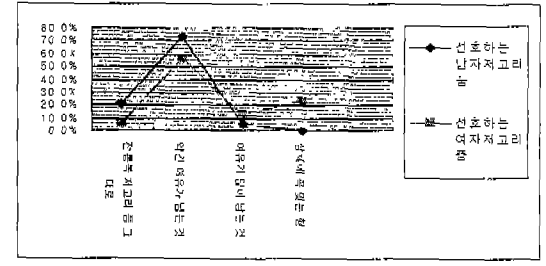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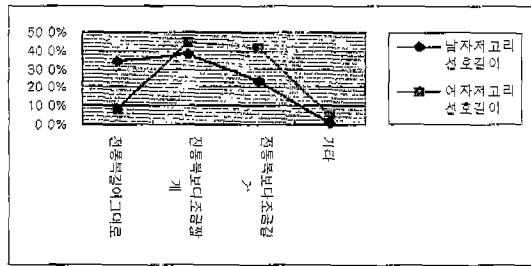
보다 20cm 짧은 길이로 나타났다.

· 치마폭 : 치마폭은 전통한복 보다 약간 좁은 것을 선호하였다.

· 치마형태 : 형태변형에 있어서 플레어 스커트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나 개더 스커트나 A라인 스커트형도 선호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램프스커트에 속하는 전통한복 치마를 램프스커트로 변형시키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치마끈 : 치마끈에 대해서도 바지와 마찬가지로 지퍼나 단추치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길이에 관련한 선호도를 제외하고는 연령별,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6> 남녀에 따른 선호 디자인 요소 비교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이에 맞는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4.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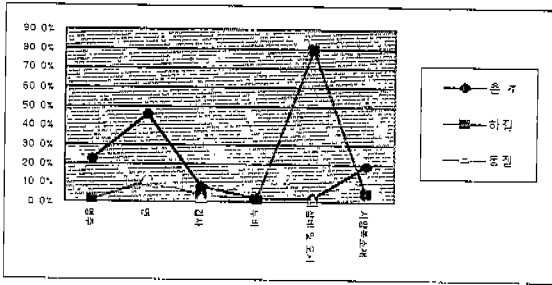
· 치마길이 : 치마길이에 있어서는 전통한복보다 20cm 짧은 길이와 전통한복보다 10cm 짧은 발목길이가 유의한 차이 없이 선호되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전통한복보다 10cm 짧은 길이는 30, 40, 50대에서 고루 선호하는 반면 20대에서는 전통한복

나.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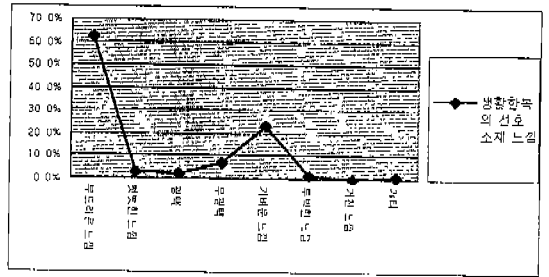
소재에 관한 조사는 설문지에서 2개 문항으로 계절별 선호소재와 소재의 느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생활한복 소재 선호도 : 생활한복 소재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남녀 전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춘추용으로 46.0%가 면을 선택하였고, 하절기는 삼베, 모시, 동철기는 서양복 소재를 직함하게 생각하

<그림 7> 계절별 선호소재



<그림 8> 선호소재 느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질감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62.6%가 '부드러운 느낌'을 선택하였으며, 다른 요인과 상당한 선호도 차이를 보임으로써 생활한복에서 기능성과 활동성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같은 맥락으로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거친느낌, 투박한 느낌, 광택이 나는 것 등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생활한복 업계에서 사용하는 의복 소재가 대개 면소재, 면 혼방, 마. 마 혼방으로서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는 소재이며, 한복점에서의 맞춤복인 경우 전통한복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광택성이 있는 현실로 비추어 보아, 소비자의 요구와 현재 시장상황이 상당히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소비자의 생활한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와 연관하여, 생활한복에 있어서의 소재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소재 선호도를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의복 구입에 있어서 스타일, 색상, 질감에 민감하다는 문항과 생활한복 소재느낌과의 사이에

는 상관관계수 0.2314로서 상관관계가 없으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문항과 소재느낌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질감에 민감하다는 것과 계절별 소재 선택 사이에 있어서는 봄, 가을이나 여름 소재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겨울소재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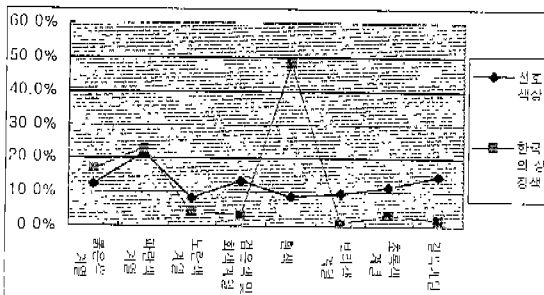
다. 색상

색상에 관한 조사는 색상 이미지, 선호색상, 색상 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상징색, 선호색상에 있어서 이미지, 배색, 색조경향, 염색상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색상선택요인에 관한 문항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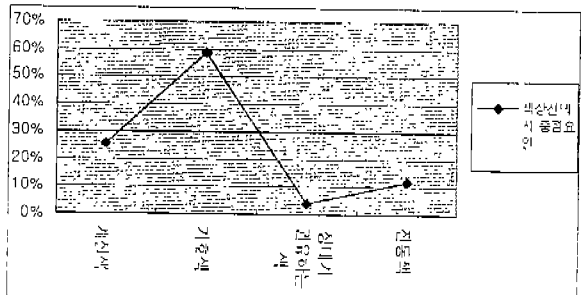
· 한국의 상징색 : 한국의 상징색에 있어서는 흰색이 47.6%를 차지하였으며, 이에겐 학력이나 성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백의민족'이라는 오래된 관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파란색 계열, 붉은색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 선호색상 : 한국의 상징색 중 선호색상에 관한 조사는 파란색 계열, 붉은색 계열이 선호 상징색으

<그림 9> 선호색상과 한국의 상징색



<그림 10> 색상선택시 중점요인



로 인식되었으며, 파란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은 큰 선호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대표적인 상징색으로 인지된 흰색의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색동은 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우선 현재 착용되고 있는 바랜듯한 염색상태에 관하여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37.8%)이 많았다. 그러나 색상에서 오는 느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바랜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 온화한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한복의 대부분의 색상이 부드러운 색조이지만 바랜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이에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

선호 색상은 한국을 상징하는 색과 무관한 갈색이 푸른색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되어 한국의 상징색과 선호색상간에 거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1365)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흰색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의복에 적용하기에는 오염성 등 부담감이 작용하여 생긴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흰색을 의복에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전통한복에서 흰색의 동정이 의복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한 것과 같이 부분적인 액센트 칼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활한복 색상 선택시 한국의 전통색을 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하여, 소비자의 선호색상에 근접하도록함과 동시에 한국을 상징하는 상징색을 적절하게 배색 사용함으로써 전통성의 느낌이 배어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배색선호도 : 배색선호도에 있어 상·하로 구분하여 배색경향을 조사한 결과, 51.5%가 상하 다른색, 25.5%가 상하 같은색에 부분적으로 다른 색상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하 같은색의 변화없는 경향은 대부분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3가지 이상의 배색 역시 선호도가 낮게 조사되어 부분적 다른 색상이 아니라 동일 면적을 차지하는 색상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기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하가 다른 색을 원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처럼 색조경향에 있어서도 옅은색 저고리에 짙은색 치마 또는 바지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짙은색 저고리에 옅은색 치마 또는 바지로 나타나 대부분이 색조의 변화를 원했다. 이러한 배색경향 및 색조경향과 함께 배색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여름에는 흰색 저고리에 파란색 치마 또는 바지, 겨울에는 검은색·회색 치마 또는 바지가 적당하다고 선택하였으며, 봄·가을에는 노란색 저고리에 갈색치마나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조화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여름에는 한색계열, 겨울에는 남색계열의 선호색상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선호색상 조사결과가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호하는 색상과 실제 착용할 의복색상 선택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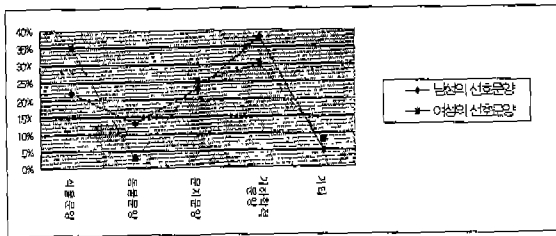
· 생활한복 구입시 중점을 두는 요인 : 생활한복 구입시 색상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요인으로는 기호색상을 선택한다는 의견이 58.7%로 가장 높았고, 계절 색상은 25.8%로 즉, 상대가 권유하는 색상이기보다는 자신의 기호색이 가장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배색선호도에서는 조사되었던 것처럼 기호색이 그대로 의복색에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호색과 함께 계절색이나 전통색 역시 고려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라.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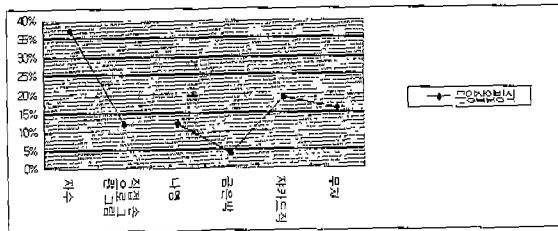
문양에 관한 조사는 문양의 유무와 문양의 형태, 문양 삽입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5개 문항이 이에 속한다.

· 문양의 유무 : 문양의 유무에 있어서 55.6%가 있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무지를 선택한 것도 44.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문양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다루어 문양의 형태에 관한 선호도를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그림 11> 선호문양 형태



<그림 12> 문양삽입방식



· 문양형태 : 문양형태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식물문양도 거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선호되었으나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의 경우 기하학적인 문양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여성은 식물문양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광택성이 있는 금·은박 처리는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소재에서의 선호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양복 소재에 있어서도 세로줄 무늬가 32.2%로 가장 많이 나타나 기하학적인 문양의 선호경향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동·식물문양인 자연문양도 25.6%로 두 번째로 선호되었고, 한복 소재와 서양복 소재의 문양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상관계수 0.4521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소재에 상관없이 같은 문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문양배치상태 : 문양배치상태는 상의와 하의에 골고루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선호하였고, 전체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의 또는 하의에만 부분적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이루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문양삽입방식이나 선호문양형태에 있어서는 상관계수가 0.2156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게 나타나 비교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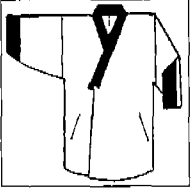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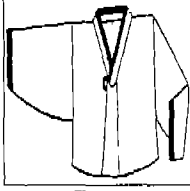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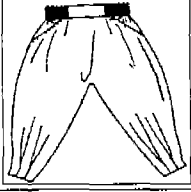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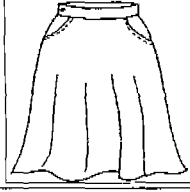
③ 결론

이상과 같이 생활한복 디자인 선호도 조사내용을 남녀에 따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4) 결론 및 제언

생활한복을 개발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바로 전통복식의 '현대화'작업이다. 진정한 '현대화'는 전통복에 근거하여 첫째, 현대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선과 형태를 변형·보완하는 것으로 실루엣상에서 실현되어야한다. 둘째, 관리상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소재에 과학적 가공법을 적용하거나 서양소재를 혼용하므로써 관리상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강화하는 소재의 현대화이다. 셋째, 세부장식 및 착장방식의 현대화이다. 넷째,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측면에서의 현대화이다. 활동상의 편의성이나 착장상태의 심미적 개선을 위해 전통복의 구성방법에 서양복의 패턴을 응용하는 방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수용과 의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심미성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 전통복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적이고 정신적인 아름다움의 요소를 현대인의 감각이나 주변 생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개선하여 시각적 부조화를 최소화하고 심리적으로도 순응되도록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한복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식 및 디자인 선호도에서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전통복에 근원을 둔 디자인을 선호하였고 여기에 활동성, 기능성, 편의성을 요구하였다. 이때 전통복 요소에서 형태, 색상, 소재, 봉제상태의 순으로 개선하여 생활한복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통성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요소를 도출해내어 이를 중심으로 현대생활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요건이나 현대적 심미성 또는 현대인에게 익숙한 서양복의 요소를 보완해 나가

<표 8> 디자인 선호도 조사 비교·분석표

디자인 선호조사				
성별	남		여	
행의태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복 보다 짧은길이</li> <li>· 여유있는 품</li> <li>· 좁아진 소매</li> <li>· 고름, 동정, 깃, 여밈부분 변형(매듭단추)</li> </ul>  <p>선호된 기존상품 (26.2%)</p>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통복 길이+10(20) cm</li> <li>· 여유있는 품과 상체곡선에 꼭 맞는 스타일</li> <li>· 좁아진 소매</li> <li>· 고름, 동정, 깃, 여밈부분 변형(매듭단추)</li> </ul>  <p>선호된 기존상품 (35.6%)</p>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바지폭</li> <li>· 고무줄 허리</li> <li>· 허리 단추</li> <li>· 앞지퍼</li> <li>· 바짓부리처리</li> </ul>  <p>선호된 기존상품 (26.6%)</p>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목길이(발목과 종아리 중간 길이)</li> <li>· 플레어스커트</li> <li>· A라인스커트</li> <li>· 게터스커트</li> <li>· 허리단추</li> <li>· 앞지퍼</li> </ul>  <p>선호된 기존상품 (22%)</p>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란색&gt; 갈색&gt; 검은색 및 회색</li> <li>·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li> <li>· 상하 다른색(열은색 상의+질은색 하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란색&gt; 붉은색&gt; 초록색</li> <li>·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li> <li>· 상하 다른색(열은색 상의+질은색 하의)</li> </ul>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춘추) / 삼베, 모시(하절) / 서양복 소재(동절)</li> <li>· 부드러운 느낌, 가벼운 느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춘추) / 삼베, 모시(하절) / 서양복소재 재(동절)</li> <li>· 부드러운 느낌, 가벼운 느낌</li> </ul>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양선호 55%</li> <li>· 상하의 올오버 패턴</li> <li>· 기하학적 문양(세로줄문양-서양복 소재)</li> <li>· 식물문양(자연문양-서양복 소재)</li> <li>· 자수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양선호 56%</li> <li>· 상하의 올오버 패턴</li> <li>· 기하학적 문양(세로줄문양-서양복 소재)</li> <li>· 식물문양(자연문양-서양복 소재)</li> <li>· 자수방식</li> </ul>	

는 과정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전통복의 특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에 대하여 복식 전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 상의의 요소 : 깃>소매의 배래>동정>고름>섶
- 남자 바지의 요소 : 바짓부리>대님의 결속방식>허리의 여밈>밀위.
- 여자 치마의 요소 : 항아리형 실루엣>둘러입는 방식>허리 주름>허리선의 위치.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에 근거한 이러한 의견과 함께 여유있고 부드러운 선의 표현이나 간결하고

순수한 조형성, 공간의로서의 특성, 평면배치와 구성등 자연스런 전통복의 아름다움을 현대화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후 2보에서는 연구과제 2 '전통염법을 통한 선호색상 추출, 색도측정, 천연염과 화학염의 혼용 방법에 의한 색상 제시', 연구과제 3 '시장조사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한 생활한복 업체 현황조사',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4에서는 구성방식, 조형성, 소재, 색상의 현대화 기준을 토대로 하여 개발된 생활한복모형에 대한 내용 및 사진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또한 생활한복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능검사 결과표를 제시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1992.
- 김윤희, 김민자, “인체의 추상형/사실형 개념에 따른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연구”, 「복식」, 26호, 1995.
- 결재정, 「한국의 미」, 중앙일보사, 1986.
- 안명숙, 김은정, 양숙향,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호, 1998.
-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밀알, 1994.
- 이인자, 이태옥, “한복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1993.
- 임영자,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호, 1996.
- 조효숙, 김선경, 이희승, “생활한복의 구매실태 연구”, 「한복문화」, 제1권 2호, 1998.
-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 1995.
- 천종숙,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6호, 1998.
- 채금석, 고정민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5호, 1999.
- 최은영, “생활한복의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위험지각과 자기 이미지를 중심으로-”, 「복식」, 42권, 1999.
- 「한국전통문양」, 도서출판 예원, 1998.
-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1995.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 홍가이, 「현대미술 · 문화비평」, 미진사, 1987.
- 황의숙, “한국 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1995.
- Shri Benstock and Suzanne Ferriss, 「On Fashion」, New Jersey : Rutgers University Press, 1994.